지식경제부	보도자료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www.mke.go.kr

2012년 12월 11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지식경제부 자동차조선과 김정회 과장, 신정환 주무관(02-2110-4825)

※ 본 조사는 자동차산업협회와 수입자동차협회의 회원사(국내 완성차社 및 수입차판매업체) 국내시장 판매대수를 기준으로 조사·분석한 잠정치임

- '13년 자동차 산업! 수출은 소폭 증가, 내수는 회복 지연이 예상됨 -
- 11월 자동차! 생산, 내수 금년 최대치 기록 -

□ 지식경제부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유럽의 재정위기 확산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13년 자동차 산업은 국내·외 생산과 수출을 중심으로 소폭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

○ '11년 시작된 유럽의 재정 위기가 지속되고 중국의 경제 성장도 둔화되고 있으며, 미국의 재정절벽 등과 같은 불안요인이 존재하는 등 '13년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대외여건 속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은 유럽의 수요 감소, 원화강세 등의 불안요인도 있으나, 북미 수출의 꾸준한 증가세, FTA 추가 관세 인하(한-EU) 등의 긍정요인으로 수출 수요를 중심으로 국내 생산과 수출이 금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13년 자동차 산업 전망(단위: 천대, %) >

구 분	2011년		2012년(추정)		2013년 전망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국내 생산	4,657	9.0	4,600	-1.2	4,700	2.2
해외 생산	3,141	20.6	3,600	14.6	3,800	5.6
수 출	3,152	13.7	3,200	1.5	3,300	3.1
내 수	1,587	1.5	1,532	-3.5	1,550	1.2
국산차	1,475	0.6	1,400	-5.1	1,400	0.0
수입차	112	13.3	132	17.4	150	13.6

*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국내생산)** 내수시장의 성장 둔화에도 불구, 수출의 소폭 증가와 공장 증설 등으로 금년대비 2.2% 증가한 470만대 전망

* 국내 생산 중 수출비중 : ('11) 67.7% → ('12) 69.6%
** 기아 광주 공장 증설 : 46만대('12) → 62만대('13)

□ **(해외생산)** 금년에 신설된 현지공장의 본격 가동*과 기존 공장의 생산능력 확대** 등으로 금년대비 5.6% 증가한 380만대 전망

* 현대 중국 제3공장('12.7월, 40만대), 브라질공장('12.11월, 15만대)
** 현대 터키 공장의 생산능력 확대(10만대→20만대, '13년 중)

□ **(수출)** EU 시장의 침체와 브라질 등 중남미 시장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세계 자동차 시장의 증가세를 바탕으로 북미, 동유럽 등의 주요시장이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여 금년대비 3.1% 증가한 330만대 수출 전망

* '12.1~10월 지역별 수출 증가율(전년대비, %) : 북미(19.4), EU(-6.8), 동유럽(7.6), 중남미(-13.0)

○ **(긍정 요인)** 미국 자동차 시장의 회복세와 동유럽, 아시아 지역의 성장세를 바탕으로 '13년 세계 자동차 시장이 소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 '13년 세계 자동차 수요 : 8,873만대 예상('12년(8,427만대)대비 5.3% 증가)
** '13년 지역별 증가율(%) : 미국 5.4, 중남미 1.3, 동유럽 6.1, 아·태평양 7.0 (LMC Automotive)

- 한-EU FTA 추가 관세 인하와 터키, 콜롬비아 FTA 발효('13년 중 예상) 등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향상과 주요 시장별 특성에 맞는 신차종 투입 확대 등의 수출 증가 요인이 존재함

* 한-EU FTA 추가 관세인하('13.7월): 1500cc 초과(4.0→2.0%), 1500cc이하(6.6→5.0%)

< '13년 글로벌 주요시장별 수출 신차 >

지역별	신차 투입 모델	비고
미 국	(현대) 제네시스 후속, 싼타페 롱바디, (기아) K3, K9 등	고연비 소형차 및 고급차량 투입
E U	(기아) 카렌스 및 쏘울 후속, (한국지엠)소형SUV(Mokka) 등	실용적인 소형 RV 수출 주력
기 타	(현대) 싼트페, 제네시스, (기아) K3, (한국지엠) 캡티바, (쌍용) 코란도 등	고연비 소형차와 중동, 중남미 신흥 부유층을 겨냥한 중대형 고급차 등

○ **(부정 요인)** 다만, 유럽 재정위기 확산과 신흥국 경기 둔화 등으로 글로벌 금융 및 실물 경기가 침체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원화 강세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와 글로벌 업체와의 고연비 경쟁이 더욱 심화되는 부정적 요인도 상존함

* 환율변동 예상 추이(평균) : 1,133원('12) → 1,080원('13), (출처 : LG경제연구원)

** 고유가 지속에 따라 GM 소닉RS, 포드 포커스ST, 폴크스바겐 골프GTI, 도요타 신형 코롤라, 혼다 신형 피트, 닛산 뉴 노트 등 연비를 향상시킨 모델 출시 확대

□ **(내수)** 내년 국내경제가 3.0%대의 소폭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잠재대체수요의 증가와 신차 출시에도 불구, 가계부채 증가 부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13년 내수 시장 규모는 155만대 전망

< 국내경기 및 민간소비 성장률 예상, 출처: 한국개발연구원(KDI) >

① 경제성장률 : 2.2%('12) → 3.0%('13), ② 민간소비 : 1.7%('12) → 2.7%('13)
③ 소비자물가 : 2.2%('12) → 2.3%('13), ④ 실업률 : 3.3%('12) → 3.2%('13)

○ **(긍정 요인)** 차량 등록 후 10년 이상된 노후 차량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인기차종의 후속모델과 고연비의 소형 SUV 등의 신차를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날 긍정요인이 다소 존재

* '10년 이상 노후 차량 대수(총 등록대수 중 비중) : 569만대('12.1월, 30.9%) → 621만대('12.11월, 33.0%)

** '13년 신차 모델 : 현대(제네시스 후속), 기아(쏘울, 카렌스 후속), 한국지엠(소형SUV), 르노삼성(소형SUV)

○ **(부정 요인)** 가계부채 부담 증가 등으로 위축된 소비심리가 단기간에 호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 연말로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되는 것도 내년도 내수 확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가계대출 규모('11.3분기 → '12.3분기) : 836.0조원 → 882.4조원 (5.6%↑)

** 소비자심리지수 : ('11.11) 103 → ('12.11) 99 (100 이하면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가 부정적임을 나타내는데, 4개월 연속 100 이하 기록)

◈ 산업연구원 발표 내수 전망치 : 1,518,000대(전년비 -1.0%) 예상

□ 한편, 지식경제부는 '12.11월 국내 자동차 산업은 역대 생산 월간 최대치를 기록하며 전년동월비 생산 3.7%, 내수 13.9% 각각 증가, 수출은 0.6% 감소하였다고 밝힘

< 11월 자동차산업 총괄표 (단위 : 대, %) **>**

구 분	'12.11월	전월비	전년동월비	'12.1-11월	전년동기비
생 산	444,049	12.0	3.7	4,156,318	-1.8
내 수	142,447	4.2	13.9	1,394,724	-3.3
국산차	129,977	4.2	12.2	1,274,529	-5.2
수입차	12,470	3.8	35.1	120,195	23.7
수 출	299,638	16.4	-0.6	2,895,636	1.6

*** 11월 SAAR**(계절조정 연간 자동차 판매대수)은 1,643,133대

○ **(생산)** 11월 생산은 내수의 높은 증가율을 바탕으로 전년동월비 3.7%가 증가한 444,049대로 역대 월별 최대치를 기록

* 르노삼성을 제외한 현대, 기아, 한국지엠, 쌍용은 올해 최고 생산 실적을 기록

○ **(수출)** 11월 수출은 EU 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북미 등의 주요시장으로의 꾸준한 호조세와 전반적인 공급 능력 회복 등을 바탕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299,638대 기록

- 전년동월대비 대수기준으로는 0.6%의 감소세를 나타냈지만 국산차의 고품질화로 인해 꾸준히 평균단가가 상승하며 금액기준으로는 44.72억불(잠정)로 전년비 1.8%('11.11월, 43.93억불)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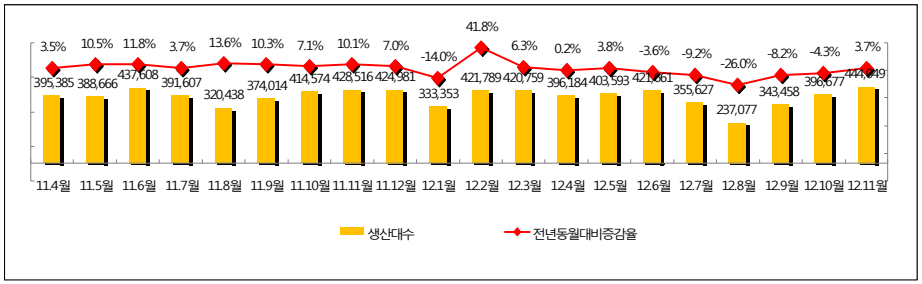
○ **(내수)** 11월 내수판매는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 및 업계의 특별할인 등 강화된 마케팅 효과로 전년동월비 13.9%가 증가한 142,447대로 올해 최고 실적을 기록

* 대수 기준은 '11.3월(144,372대) 이후 20개월만에, 증가율 기준은 '10.8월(25.4%) 이후 27개월만에 각각 최대치를 기록함

참고 1 11월 자동차 생산 동향

□ 11월 생산은 3분기 발생한 생산차질 만회를 위한 생산정상화 등으로 전년동월비 3.7% 증가한 444,049대로 역대 월별 최대치 기록

< '11. 4월 이후 월별 자동차 생산추이>



○ **현대**(184,819대)는 내수증가세 등을 바탕으로 전년동월비 **6.4%** 증가, **기아**(154,314대)는 증축공사(광주 2공장)가 마무리되면서 전년수준을 기록하였으며, 각각 올해 최고 실적을 기록

○ **한국지엠**(79,318대)과 **쌍용**(11,492대)도 내수 및 수출의 전반적인 증가로 올해 최고 실적을 기록하면서 **6.8%, 39.9%** 각각 **증가**한 반면, **르노삼성**(12,936대)은 내수 및 수출부진으로 **19.0% 감소**하였으나 전월대비는 10.0%의 증가세를 나타냄

< '12. 11월 업체별 생산 현황 (단위 : 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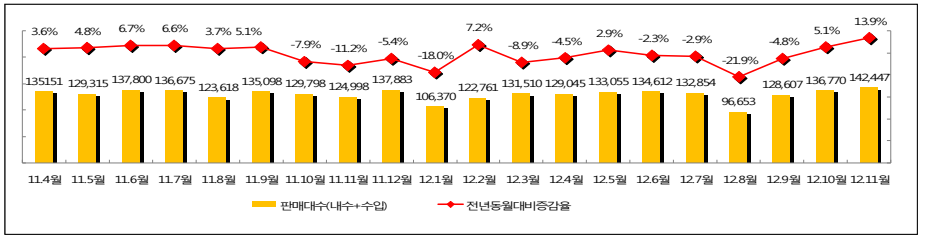
구 분	'12. 11월		'12. 1- 11월	증 감 률		
		점유율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년동기비
합 계	444,049	100.0	4,156,318	12.0	3.7	-1.8
현 대	184,819	41.6	1,733,576	2.5	6.4	1.6
기 아	154,314	34.8	1,451,723	26.8	-0.7	1.4
한국지엠	79,318	17.9	713,079	11.3	6.8	-3.8
르노삼성	12,936	2.9	142,160	10.0	-19.0	-39.6
쌍 용	11,492	2.6	108,216	7.2	39.9	2.8
기 타	1,170	0.2	7,564	66.4	34.5	-35.5

*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참고 2 11월 자동차 내수판매 동향

□ 11월 내수판매는 개별소비세 인하를 바탕으로 국산차 인기모델의 신차효과와 수입차의 호조세 등으로 전년동월비 13.9%가 증가한 142,447대를 기록하며 '11.3월(144,372대) 이후 20개월만에 최대치 기록

< '11.4월 이후 월별 자동차 내수판매(국산+수입) 추이 >



□ **(국산차 판매)** 11월 국산차 판매는 가계부채 부담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에도 불구, 개별소비세 인하 및 업계의 마케팅 강화, 싼타페 및 K3 신차효과로 전년동월비 12.2% 증가한 129,977대로 올해 최고 실적 기록

○ **현대**(61,608대)와 **기아**(44,400대)는 싼타페, K3 신차효과와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및 이에 호응한 특별할인 프로그램 시행으로 전년동월비 **12.6%, 13.8%** 각각 **증가**하면서 올해 최고 실적 기록

○ 주력 차종이 호조를 보인 **한국지엠**(13,768대)은 쉐보레 브랜드 도입 이후, **쌍용**(4,404대)은 '11.3월 이후 최대 실적 기록하면서 전년동월비 각각 **27.5%, 49.1% 증가**한 반면, **르노삼성**(5,184대)은 주요 모델 경쟁심화로 **33.2% 감소**하였지만 하반기들어 최대 실적 기록

□ **(수입차 판매)** 11월 수입차 판매는 지속적인 신차출시와 저배기량 차종 중심으로 꾸준한 호조세를 이어가며 전년동월비 35.1% 증가한 12,470대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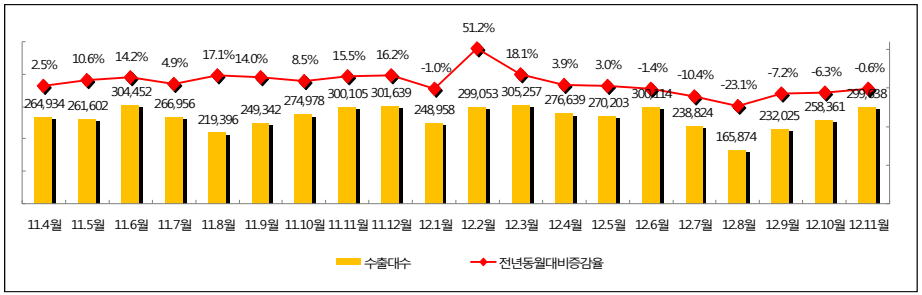
○ 특히, 고연비 디젤 승용차와 하이브리드차의 판매 비중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수입차 중 유종별 판매 비중('11.11월→'12.11월) : 휘발유(58.4%→38.1%), 디젤(36.1%→55.9%), 하이브리드(5.5%→6.1%)

참고 3 11월 자동차 수출 동향

□ 11월 수출은 EU시장 위축에도 불구, 북미 등의 꾸준한 수출 호조세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공급회복, 소형차의 호조세 등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299,638대 기록

< '11. 4월 이후 월별 자동차 수출추이 >



○ **현대**(117,668대)는 엑센트, 아반떼 등 주력 차종의 해외인기를 바탕으로 전년수준을 기록하였으며, **기아**(104,150대)는 프라이드, K5, 쏘울 등의 인기에도 불구, 내수 선대응으로 인한 공급물량 감소로 **4.6% 감소**

○ **한국지엠**(63,143대)은 전략차종인 소형 SUV(Mokka) 본격 수출 등으로 **8.8%, 쌍용**(7,004대)은 코란도C의 중국 본격 진출을 바탕으로 올해 최고 실적을 기록하면서 **16.4%** 각각 증가한 반면, **르노삼성**(7,257대)은 유럽 경기침체 영향 등으로 **23.7% 감소**

< '12. 11월 업체별 수출 현황 (단위 : 대, %) >

구 분	'12. 11월	점유율	'12. 1- 11월	증 감 률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년동기비
합 계	299,638	100.0	2,895,636	16.4	-0.6	1.6
현 대	117,668	39.3	1,130,693	5.6	-0.5	5.3
기 아	104,150	34.8	1,013,855	32.3	-4.6	4.4
한국지엠	63,143	21.1	594,491	18.2	8.8	-1.2
르노삼성	7,257	2.4	86,879	8.7	-23.7	-33.6
쌍 용	7,004	2.3	65,479	2.4	16.4	-4.4
기 타	416	0.1	4,239	54.6	22.4	20.4

*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참고 4 11월 업체별 자동차 국내판매 현황

< '12. 11월 업체별 자동차 국내판매 현황 (단위 :대, %) >

구 분	'12. 11월	전월비	전년동월비	비중	'12.1-11월	전년동기비
합 계	142,447	4.2	13.9	100.0	1,394,724	-3.3
국 산 차	129,977	4.2	12.2	91.2	1,274,529	-5.2
현 대	61,608	0.2	12.6	43.2	604,671	-3.4
기 아	44,400	9.4	13.8	31.2	435,546	-2.8
한국지엠	13,768	4.6	27.5	9.7	131,423	3.4
르노삼성	5,184	10.8	-33.2	3.6	53,521	-46.7
쌍 용	4,404	5.3	49.1	3.1	42,335	20.4
수 입 차	12,470	3.8	35.1	8.8	120,195	23.7
BMW	2,703	1.8	58.3	1.9	26,916	20.8
폭스바겐	2,022	2.4	143.3	1.4	16,613	41.9
벤 츠	1,867	-4.6	11.6	1.3	19,143	9.0
아우디	1,405	0.9	32.2	1.0	14,046	43.5
토요타	935	9.6	125.3	0.7	9,803	113.4
미 니	673	22.1	95.1	0.5	5,331	35.7
렉서스	616	31.1	53.2	0.4	4,245	16.4
포 드	563	14.7	21.6	0.4	4,697	23.5
크라이슬러	357	42.8	15.5	0.3	3,735	21.7
닛 산	293	40.9	-66.2	0.2	2,096	-38.6

* 출처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참고 5 11월 브랜드별 자동차 국내판매 현황

< '12.11월 브랜드별 자동차 국내판매 현황 (단위 : 대, %, 소수 두자리 반올림) **>**

순위	브랜드	'12. 11월	전월비	전년동월비	비중	'12.1-11월	전년동기비
합 계		142,447	4.2	13.9	100.0	1,394,724	-3.3
1	현대	61,608	0.2	12.6	43.2	604,671	-3.4
2	기아	44,400	9.4	13.8	31.2	435,546	-2.8
3	쉐보레	13,768	4.6	27.5	9.7	131,423	3.4
4	르노삼성	5,184	10.8	-33.2	3.6	53,521	-46.7
5	쌍용	4,404	5.3	49.1	3.1	42,335	20.4
6	BMW	2,703	1.8	58.3	1.9	26,916	20.8
7	폭스바겐	2,022	2.4	143.3	1.4	16,613	41.9
8	메르세데스-벤츠	1,867	-4.6	11.6	1.3	19,143	9.0
9	아우디	1,405	0.9	32.2	1.0	14,046	43.5
10	토요타	935	9.6	125.3	0.7	9,803	113.4
11	미니	673	22.1	95.1	0.5	5,331	35.7
12	렉서스	616	31.1	53.2	0.4	4,245	16.4
13	포드	563	14.7	21.6	0.4	4,697	23.5
14	타타대우	410	-1.0	-7.2	0.3	5,072	-25.1
15	크라이슬러	357	42.8	15.5	0.3	3,735	21.7
16	닛산	293	40.9	-66.2	0.2	2,096	-38.6
17	대우버스	203	-12.1	67.8	0.1	1,961	27.4
18	푸조	166	-10.3	-8.3	0.1	2,109	-13.8
19	볼보	155	37.2	20.2	0.1	1,616	19.6
20	랜드로버	153	-3.2	62.8	0.1	1,630	34.0
21	혼다	132	-61.3	-45.0	0.1	3,361	18.9
22	인피니티	109	22.5	-21.0	0.1	1,005	-49.6
23	포르쉐	88	0.0	-33.8	0.1	1,348	9.7
24	스바루	76	11.8	8.6	0.1	558	2.8
25	재규어	74	-21.3	-33.3	0.1	1,070	19.3
26	벤틀리	28	115.4	211.1	0.02	130	42.9
27	캐딜락	23	-8.0	-52.1	0.02	450	-36.4
28	시트로엥	23	-30.3	-	0.02	208	-
29	미쓰비시	6	-25.0	-	0.004	61	79.4
30	롤스로이스	3	200.0	50.0	0.002	24	4.3

* 출처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